제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8.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9.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가. 김석규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차형보 의원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8.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노창섭·김태웅·김석규·이성섭 의원 발의)
9.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양원 환경문화국장님께서 환경부와의 현안업무 협의로 정호건 창원소방서장님께서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박진한 마산소방서장님께서 소방시설 관련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5월 13일 노창섭 의원, 김태웅 의원, 김석규 의원, 이성섭 의원으로부터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제출서류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차례 서면질문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가. 김석규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차형보 의원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산구 남양동 45번지에 입지하고 있는 대방동 임시 시내버스회차장 이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은 대방지구 부지조성 사업으로 단독주택지가 들어서면서 주차장법에 의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면적 4,867㎡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과는 달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지난 16년간 시내버스회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차장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회차장은 국토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명시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정류장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위 규칙에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영현황과 실태를 봐서 주차장인지 자동차 정류장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차장은 현재 전체 30개 노선에 267대가 하루 1,469회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최근 준공된 성주공영차고지보다 운영규모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노외주차장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이 곳에 회차장은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차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이 회차장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회차장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가 지구단위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주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이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고 허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회차장과는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내버스에 의한 소음과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시가 내세우는 모범적인 계획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사권은 제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는 운행특성상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열을 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첫 출발은 20여분의 예열이 필요하고 평상시 정차 후 출발 시에도 5분에서 7분의 예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버스기사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은 모두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최근 곳곳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회전금지구역 지정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곳 회차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16년간 이러한 피해를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근 성주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회차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우리시의 약속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경 창원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시는 이 회차장은 성주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이전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돌려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주공영차고지가 조성된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이전불가로 입장을 선회 하였습니다.

이유는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방동 회차장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버스업계의 반발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정시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주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할 시에 분명히 회차장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협의나 논의가 없었으며, 당연히 대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하지 않고 편리한 쪽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편의주의로 빚어진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편의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따른 배차문제와 정시성 확보, 그에 따른 버스업계의 반발,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관련 부서 및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해루 앞을 갔습니다. 바다에 접근하는 순간 악취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악취가 심한데 저렇게 조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하천 하류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오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다음….

저기 보시다시피 거품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수와 모래톱이 섞여서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어디냐 하면 진해루 앞 하천 하류인데 병암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저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악취가 심한 곳에서 조개를 잡고 있는데 저 조개를 먹어도 되는지 참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확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금속은 체내에서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체내에서 잔류하게 되어서 몇 십년 후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이따이따이병이 그러한 예입니다. 또한 얼마 전 노로바이러스 즉 굴양식장에 노로바이러스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업인의 피해가 다소는 있었지만 이를 경각심을 일으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다시 보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보고에 의하면 속천만과 행암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공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압니다.

또 속천만과 행암만은 마산해역의 관리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연안오염 총량관리시범구역에 지정된 지역입

니다. 그 수질은 10년 평균 COD가 2.77mg/l입니다.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질현황을 보면 평균 10년 1.3mg/l입니다. 2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09년도에는 0.8mg/l로써 1등급 수질을 보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떻는가? 2.77mg/l로써 3등급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라 일컫는 우리 창원시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 전 진해에서 속천, 행암만에 정화복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했으며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국회 예산을 확정 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실시설계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7년 12월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8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처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9년 9월에 국고잔액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2006년 12월에 국회 예산에서 균특에서 일반회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속천, 행암만 해역은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창원이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국가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달에 다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투기로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바 토양관리법상 제3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제2정화조는 필요없이 바로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속천, 행암만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2007년 3월 실시설계 자료에 의하면 17개 정점에서 조사를 한 바 5개 지점에서 우리 해양관리법과 유해물질이 정하는 기준법을 다 초과했습니다.

중금속 10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다 초과를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 자료에 의하면 진해 속천만, 행암만은 꼭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산만은 80년도와 9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연자산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해양오염의 대책 지금 꼭 필요합니다. 확고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태화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또 울산만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해 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깨끗한 바다를 우리 창원시민과 훗날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창원의 식재료비 시장에 창원지역 생산 농·축·수산품 전량 급식 활용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통계청의 지난해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농가가 2010년 2만6천가구, 2011년도 2만8천, 2012년도 3만 농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농가 또한 전체의 65%로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을 육성시켜 대농과의 조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질서를 개선해야 됩니다.

앞서가는 선진농업국가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팜투스쿨 제도는 학교급식을 지역농업과 연결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팜투스쿨은 1990년대 후반 농업인의 판로 부족과 청소년 비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는 50개주 전학교가 지역 농 축·수산물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산지소 운동으로 지역생산품의 활용 제도를 적극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준비 중인데 농어업, 농어촌을 위하여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마련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대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와 시민 건강밥상,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내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경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먹거리인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삼성반도체보다 중요하다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1식당 식재료비는 2,366원으로 110만 창원시의 식자재사업의 규모는 1일 약 78억 원 규모이고 연간 약 2조8,5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특수소비품목을 더하면 3조 내지 4조 원에 육박하리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의 창의적인 농·축수산 정책 시행과 관심과 배려로 우리 지역 15만여 농·축·수산업이 회생하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양질의 먹거리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의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창에그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목을 확대시키고 축산·수산품도 포함하여 통합창원시 대표브랜드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창에그린' 등 우수 농·축·수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마케팅조직의 전문인력과 조직 확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창원시에 기업사랑과 조직이 있어 창원의 기계산업이 육성되었듯이 농·축·수산업의 총괄적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확대 재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창원시의 학교, 공공기관, 단체, 기업, 병원 등에 지역농산물 우선 급식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금년도 155억여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의 급식 전량을 '창에그린' 품목과 아울러 지역우수 농·축·수산물을 반드시 급식토록 하여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창원지역의 대형판매 유통센터에 지역 농·축·수산품이 판매되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긴요합니다.

새 정부도 농촌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농촌은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고품질 안전먹거리의 생산은 소득증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다시 한 번 지역사랑의 신토불이 열풍이 일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앞서가는 농촌건설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순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의사일정요?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입니까?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1항에서 9항까지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날 이형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18명의 의원이 서명을 첨부해서 의장불신임 안을 미리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사무국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장불신임 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나 사무국에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그 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사전에 대표발의자에

게 이런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에 포함을 못시켰다든지 아니면 형식요건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거나 저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 서명에 동참을 한 의원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분명하게 의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장불신임 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의장불신임 건은 사전에 이형조 의원님께서 저번에 안을 제출하셨는데 본회의 시작 전에 이형조 의원에게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님의 의장불신임 건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이형조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하고 심의 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형조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의장불신임 건에 대하여는 발의요건, 형식요건은 갖추어졌으나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성립요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현재 의장불신임 건에 대한 내용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배종천 속개를 선언하지 않았다든지, 의사정족수 각종 그런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송순호 의원님께서 판단한 내용이 사법부 판단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상정을 안 했습니다.

성립요건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배종천 아니지요,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제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외 제가 법률고문이라든지 …

잠시만 지금 답변 중에 있잖아요.

아니, 상식이 법이라는 내용을 가져 오십시오.

예, 장동화 의원님.

그거는 의사일정 변경 안을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해 주십시오. 접수를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예.

예.

다른 내용 없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1.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4호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해양공원에 창원쏠라타워 전시장 및 국제회의실 등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해양공원에 신축된 창원쏠라타워의 이용료와 쏠라타워 내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이용과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해양공원 입장료 면제하는 내용은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창원쏠라타워 이용료 면제내용이 누락되어 창원쏠라타워 이용료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시행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성재원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범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의 사용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입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답변자가…

예, 공창섭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공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창섭 의원 공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심각하게 한 부분입니다.

창원시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양공원은 들어가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입장료가 시민의 경우에 일반성인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다리에서 먼저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회 고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해양공원은 이미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가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쏠라타워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만 가겠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는 입장을 하는 만큼 입장료는 명확히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쏠라타워에서 전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입장료를 안 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해양공원을 봤기 때문에 비록 안 본다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입장료를 받기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공창섭 의원 그거는 아닙니다.
쏠라타워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다리에서 해양공원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는 거였고, 특별히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참석 이런 걸 위해서 쏠라타워 갈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창섭 의원 예, 내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와 좀 의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공창섭 의원 일단 어제 집행부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집행부 대답도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2회 이상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천 김헌일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

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 우리시에서 발원된 부부의 날이 200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 이 때 최초 발원지인 우리시에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통합에 따른 시의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분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조건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시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농기계 출고시간을 조정하여 농번기 적기영농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납부시기를 현재 사전납부토록 한 것을 사후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임대조건을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임대사업소의 분소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농촌복지를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관련된 조항 신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이용확산을 위한 권고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정하고 기존에 특정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에 한정하였던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권고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사용료 추가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빗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 위원 비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과 해당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위촉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내용과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500㎡미만의 공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띄우는 거리를 1.5m 동일하게 적용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이상 9m이하인 부분에 대해 띄우는 거리를 기존 2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 5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고, 또한 일본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침략하여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 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없이 몰염치한 망동과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각료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한 것은 도를 넘은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창원시의회는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 총리 등이 과거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와 책임있는 인사들이 비이성적인 망동과 망언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정싹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노창섭·김태웅·김석규·이성섭 의원 발의)

(14시 58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동·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STX 그룹 3사 노조 공대위와 경영자들이 마련한 STX 그룹 설명회에 장소 협조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창원시에서 여·야와 각 정당, 모든 시민단체를 망라한 창원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그룹과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재계 13위 그룹으로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창원시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STX, STX조선, 엔진, 중공업 등 STX 그룹 4개사가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2,500여개 업체 11만여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약 40여만명이 거리에 내몰리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 부서 등 관련기관에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 내용은 첫째 정부와 채권단은 STX 그룹 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STX조선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STX엔진, 중공업에 대하여 매출채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둘째 정부는 STX 그룹과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사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며, 셋째 방위산업이 25% 포함되어 있는 STX엔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신용장 LC를 오픈하며, 넷째 정부와 채권단이 지원하는 조선건조 비용 40%를 프랑스 등 유럽과 중국 수준인 80%이상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선박 수주에 따른 보전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STX 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시 0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13년 5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높은 논의를 거쳐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5월 1일부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선거를 도운 박상재 전 도의원을 임명했는데 이사장 재선임을 둘러싸고 추천후보 결정에 많은 잡음과 비전문가 추천, 정치적 특혜 논란 등으로 7개월간 장기간 이사장 선임을 미루어 오다가 금번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창원시의회는 특혜, 보은, 부당한 인사로 간주하는 바 주요 결의내용으로는 첫째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창원시의회는 권한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는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와 시가 채결한 운영규약을 준수하고 도세인 레저세 중 징수교부금 3%를 제외한 47%를 창원시에 지원하라. 셋째 시는 도와 협의를 통해 공단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경영인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강용범 의원님.

예, 강용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김태웅 의원인데 제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50대50으로 지분이 되어 있고 운영협약이라고 있습니다. 협약이 정관이나 조례보다 우선합니다.

그 운영협약에 보면 경남도와 협의하여 창원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가 임명했고요, 최근에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논란을 겪었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나 저 개인적으로 운영협약이 레저세와 관련된 협약이 종결될 때까지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개인적으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답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반대토론요? 예,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과 이 경륜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같이 해서 촉구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임명권한이 우리 창원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경남도지사의 권한 남용이 반드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압력도 있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촉구 결의안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경륜공단 이사장 선임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 지금 매 사건마다 경남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는 경남도에 도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일도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도와 상급기관과 의논해서 같이 상생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면은 좀 우리가 연기를 하자, 다음 달 정례회까지…, 좀 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깊습니다.

모든 판단은 의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창원시 재정과 창원시의원으로서 창원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소속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설립 이후 총 396억원의 레저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50대50 지분을 감안하면 창원시에 약 2,000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고작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은 370억원이 전부입니다.

경륜장에 주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창원시민들이고 근로자, 택시기사, 주부들이 있습니다. 경륜공단의 내부 분석에 의하면 통합창원 시민들이 7~80%를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사행사업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륜공단을 창원시와 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이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여 경남도 50%, 창원시 50% 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인 레저세는 1년에 약 400억원의 세수를 걷어들이고 징수교부금 3%를 제외하고 전액 경남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창원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레저세 50%는 창원시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출자한 공단 설치 조례나 정관보다 운영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이번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몇차례 협의와 운영협약 개정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임명 전에는 레저세 지원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장이 선임되고 난 뒤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고, 경남도는 레저세 명목으로 창원시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 집행부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운영협약 개정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사장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경남도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창원시는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창원시는 운영협약 개정 협상에서 우위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창원시의회가 창원시민을 위해 대신해서 나서야 합니다. 경남도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최근에 5월 1일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추천한 박상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서류제출을 미루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니 자료를 수정하여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륜공단이 경남도에 추천한 인사가 임명된 후부터 창원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원시의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회의 전통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잠시만요, 박철하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 있다가 하십시오.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이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에게 경륜공단을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경륜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창원시장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는 40년간 기업경영을 상공인으로 기업 운영을 통해 획득한 경영노하우를 경륜공단에 접목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경륜공단 운영을 위한 경영전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때 퇴진을 요구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와 대립할수록 우리시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우리시도 100%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로부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및 도비보조금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에 날카로운 대립은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륜공단 이사장의 전직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상남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재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주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회를 주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그 때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예, 이형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님 보류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

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중 찬성 27명, 반대 18명, 기권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경륜공단 경영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폐회)

○출석의원(51인)

이상석	차형보	김동수
장동화	강영희	박해영
방종근	공창섭	이희철
배종천	이찬호	정영주
강기일	노창섭	강장순
김석규	여월태	강용범
이명근	이옥선	정쌍학
정광식	김순식	황일두
송순호	조갑련	김종대
박삼동	이형조	문순규
손태화	이상인	전수명
조준택	김헌일	유원석
정우서	김성일	김태웅
박철하	이성섭	이치우
장병운	홍성실	심재양
최미니	김윤희	심경희
조재영	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행정국장	박춘우

경제재정국장 이동찬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
창원중심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김흥수
녹지사업소장 임태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조철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필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현만
진해구청장 이성주